



이동글 수능국어

독서 문제지

지문을 관통하는 일관된 흐름과 원칙

단순 연도별 기출 문제 배열이 아닌 동일한 구조와 행동을 보이는 기출 문제들을 패턴화
그리고 단순 문제 해설이 아닌 지문에 대한 정보 처리 능력을 길러주는 수능 국어 기출 분석서
11개년 기출 문제를 일관된 틀로 주제에 입각하여 분석하자

도란도란

독서 목차

통시 순서 과정

1509	목란화
1309	바실리카 성당
14예	중간층 귀속 의식
1309	놀이
1509	자연법
1306	역사 서술
1606	암흑 물질
1309	포토리소그래피
16수	애벌랜치 광다이오드
1609	산패
13수	음성 인식 기술

질문과 답

1106	광고 중복 출연 효과
1409	미술 종말론
1306	위임 방식
1209	진리란 무엇인가
1406	단안단서
12수	귀의 소리
1306	수분 퍼텐셜
1509	스케줄링
1509	점탄성
14수	베토벤 교향곡
1206	근섬유
14예	태양 에너지
1609	사색적 삶
15수	슈퍼문

독서 목차

사전 정보

14수	승선교
1209	데카르트 좌표
14수	분광분석법
12수	그림이론
1209	중간언어
1309	정명사상
1509	취기재
1406	캄피돌리오 광장
1509	맹자
14수	전향력
1409	각운동량
15수	취미판단
15수	신채호
16수	변론술
1506	작가주의

비교 대조

1209	영화적 관습
11수	자료 관리 구조
13예	데카르트 회의론
14예	법률 해석
1306	이차 프레임
1206	혁신의 확산
1409	반실재론
1506	고고학
1606	물아일체
1206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
1406	냉전의 책임
1409	동물의 길찾기
13수	영화와 만화
1406	산란
1506	열처리
1606	지문 인식 시스템
1409	주희와 정약용
1606	도덕 실재론과 정서주의
13수	연금제도
1406	반본질주의
16수	지식 경영론
1606	개체화 현상
15수	사회 이론
1206	연주의 의미
1506	발광효율
1606	원자의 구조
14예	역사가들의 저술
1409	창호
1609	회화주의 사진
1406	플래시 메모리
14수	토인비 가설
1506	별의 밝기
1209	디지털 피아노
1309	맥스웰 속력 분포
16수	돌림힘
12수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
14수	간접 광고
16수	항력 부력 중력
1609	항암제
15수	단백질의 합성과 분해

독서 목차

문제와 해결

11수	자산의 개혁
1209	한계비용
12수	외부성
16수	귀납의 정당화 문제
14예	위치 추정 범위
13수	귀납의 논리적 문제
1506	인센티브 계약
1409	CT
1406	저작물 공정 이용
13수	이상기체
14수	CD 드라이브
1506	광고 규제 방식
1206	진공관의 문제
1609	해시함수
1406	입증 책임
1609	설명 이론
1606	금전적 제재 수단
1609	소비자 정책
16수	도덕적 평가
15수	공공 서비스
1506	정합설
1409	소송
12수	기약의 의미
14수	심신 일원론
15수	디지털 영상
1509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
1306	디스크 스케줄링

복합 (심화)

1806	수기치인
1909	CDS 프리미엄
20수	BIS 비율
18수	오버슈팅
1706	음악적 아름다움
1706	유비논증
1809	집합의례
1709	칼로릭
1809	하이퍼리얼리즘
18수	목적론
1906	법규
1909	근대도시
2009	실내 위치 측정
2009	역사 서술
1906	최한기의 인체관
19수	법률행위
2006	에피쿠로스의 사상
2006	경기 대응 완충자본
17수	반추위
20수	베이지주의자
1709	콘크리트
17수	총체주의
1806	통화정책
1906	LFIA 키트
2006	개체
1809	LP
19수	가능세계
2009	소유점유
19수	우주론
18수	부호화
1806	DNS 스푸핑
1706	인공 신경망
1909	STM
20수	동종이식
1709	사단법인
17수	보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국어 영역 (사전 정보)

홀수형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가치 있는 사람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 문형 (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이동글 수능국어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문 미리보기]

사전 정보 파트의 가장 첫 지문입니다. 2014년 수능에 출제된 승선교 지문이고 비교적 쉬운 지문으로 선정했습니다. 일단 자기 방식대로 읽어보세요.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선암사(山巖寺) 가는 길에는 독특한 미감을 자아내는 돌다리인 승선교(昇仙橋)가 있다. 승선교는 번잡한 속세와 경건한 세계의 경계로서 옛사람들은 산사에 이르기 위해 이 다리를 건너야 했다. 승선교는 가운데에 무지개 모양의 홍예(虹震)를 세우고 그 좌우에 석축을 쌓아 올린 홍예다리로서, 계곡을 가로질러 산길을 이어 준다.

홍예는 위로부터 받는 하중을 좌우의 아래쪽으로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구조적 안정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동서양에서 널리 ㉠활용되었다. 홍예를 세우는 과정은 홍예 모양의 목조로 된 가설틀을 세우고, 그 위로 홍예석을 쌓아 올려 홍예가 완전히 세워지면, 가설틀을 해체하는 순으로 이루어진다. 홍예는 장대석(長臺石)의 단면을 사다리꼴로 잘 다듬어, 바닥에서부터 상부 가운데를 향해 차곡차곡 반원형으로 쌓아 올린다. 모나고 단단한 돌들이 모여 반원형의 구조물로 탈바꿈함으로써 부드러운 곡선미를 형성한다. 또한 홍예석들은 서로를 단단하게 지지해 주기 때문에 특별한 접착 물질로 돌과 돌을 이어 붙이지 않았음에도 ㉡견고하게 서 있다.

승선교는 이러한 홍예와 더불어, 홍예 좌우와 위쪽 일부에 주위의 막돌을 쌓아 올려 석축을 세웠는데 이로써 승선교는 온전한 다리의 형상을 갖게 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의 일부가 된다. 층의 구분이 없이 무질서하게 쌓인 듯 보이는 석축은 잘 다듬어진 홍예석과 대비가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변화감 있는 조화미를 이룬다. 한편 승선교의 홍예 천장에는 용머리 모양의 장식 돌이 물길을 향해 ㉢돌출되어 있다 이런 장식은 용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물로부터 화를 입는 것을 ㉣방지한다고 여겨 만든 것이다.



계곡 아래쪽에서 멀찌감치 승선교를 바라보자. 계곡 위쪽에 있는 강선루(降仙樓)와 산자락이 승선교 홍예의 반원을 통해 초점화되어 보인다. 또한 녹음이 우거지고 물이 많은 계절에는 다리의 홍예가 잔잔하게 흐르는 물 위에 비친 홍예 그림자와 이어져 원 모양을 이루고 주변의 수목들의 그림자도 수면에 비친다. 이렇게 승선교와 주변 경관은 서로 어우러지며 극적인 합일을 이룬다. 승선교와 주변 경관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은 계절마다 그 모습을 바꿔 가며 다채롭게 드러난다.

승선교는 못사람들이 산사로 가기 위해 계곡을 건너가는 길목에 세운 다리다. 그러기에 호사스러운 치장이나 장식을 할 까닭은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다리가 아름다운 것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옛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미의식이 반영된 덕택이다. 승선교가 오늘날 세사의 번잡함에 지친 우리에게 자연의 소박하고 조화로운 미감을 ㉤선사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홍예석들은 접착제로 이어 붙여서 서로를 단단하게 지지한다.
- ② 홍예와 그 물그림자가 어우러져 생긴 원은 승선교의 미감을 형성한다.
- ③ 홍예는 조상들의 미의식이 잘 드러나는 우리나라 특유의 건축 구조이다.
- ④ 홍예는 사다리꼴 모양의 목조로 된 가설틀을 활용하여 홍예석을 쌓아 만든다.
- ⑤ 승선교의 하중은 상부 홍예석에 집중됨으로써 그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된다.

2. 윗글의 ‘승선교’와 〈보기〉의 ‘옥천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옥천교(玉川橋)는 창경궁(昌慶宮)의 궁궐 정문과 정전 사이에 인위적으로 조성한 금천(禁川) 위에 놓여 있다. 이 다리는 지엄한 왕의 공간과 궁궐 내의 일상적 공간을 구획 하는 경계였고 임금과 임금에게 허락받은 자들만이 건널 수 있었다. 옥천교는 두 개의 홍예를 이어 붙이고 홍예와 석축은 모두 미려하게 다듬은 돌로 쌓았다. 또 다리 난간에는 갖가지 조각을 장식해 전체적으로 장중한 화려함을 드러내었다. 두 홍예 사이의 석축에는 금천 바깥의 사악한 기운이 다리를 건너 안으로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깨비 형상을 조각 했다

- ① 승선교와 달리 옥천교는 통행할 수 있는 대상에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권위적인 영역으로 진입하는 통로이겠군.
- ② 승선교와 달리 옥천교는 다듬은 돌만을 재료로 사용하고 난간에 조각 장식을 더한 것으로 보아, 장엄함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겠군.
- ③ 옥천교와 달리 승선교는 계곡 사이를 이어 통행로를 만든 것으로 보아, 자연의 난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④ 옥천교와 승선교는 모두 서로 다른 성격의 두 공간 사이에 놓인 것으로 보아, 이질적인 공간의 경계이겠군.
- ⑤ 옥천교와 승선교는 모두 재앙을 막기 위한 장식을 덧붙인 것으로 보아, 세속을 구원하고자 하는 종교적 의식이 반영된 것이겠군.

3. 문맥상 ㉠~㉤을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쓰였다.
- ② ㉡: 튼튼하게
- ③ ㉢: 튀어나와
- ④ ㉣: 그친다고
- ⑤ ㉤: 주는

[45~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문 미리보기]

2015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슈퍼문 지문입니다. 이전의 지문에서 배운 행동 양식을 중점적으로 읽어 보세요. 시간은 6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평소보다 큰 보름달인 ‘슈퍼문(supermoon)’을 보게 된다. 실제 달의 크기는 일정한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 현상은 달의 공전 궤도가 타원 궤도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타원은 두 개의 초점이 있고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를 합한 값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다.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 모양에 가까워진다. 타원에서 두 초점을 지나는 긴지름을 가리켜 장축이라 하는데,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장축의 길이로 나눈 값을 이심률이라 한다.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이심률은 작아진다.

달은 지구를 한 초점으로 하면서 이심률이 약 0.055인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 이 궤도의 장축 상에서 지구로부터 가장 먼 지점을 ‘원지점’,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지점’이라 한다. 지구에서 보름달은 약 29.5일 주기로 세 천체가 ‘태양 - 지구 - 달’의 순서로 배열될 때 볼 수 있는데, 이때 보름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슈퍼문이 관측된다. 슈퍼문은 보름달 중 크기가 가장 작게 보이는 것보다 14 % 정도 크게 보인다. 이는 지구에서 본 달의 겉보기 지름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구에서 본 천체의 겉보기 지름을 각도로 나타낸 것을 각지름이라 하는데, 관측되는 천체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각지름이 커진다. 예를 들어, 달과 태양의 경우 평균적인 각지름은 각각 0.5° 정도이다.

지구의 공전 궤도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지구 역시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로 공전하고 있으므로, 궤도 상의 지구의 위치에 따라 태양과의 거리가 다르다. 달과 마찬가지로 지구도 공전 궤도의 장축 상에서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갖는데, 이를 각각 원일점과 근일점이라 한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이러한 거리 차이에 따라 일식 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세 천체가 ‘태양 - 달- 지구’의 순서로 늘어선고, 달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특정한 위치에 있을 때, 일식 현상이 일어난다. 이때 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대부분의 경우 태양면의 전체 면적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 일식이 관측된다. 하지만 일식이 일어나는 같은 조건에서 달이 원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대부분의 경우 태양 면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지 않아 태양 면의 가장자리가 빛나는 고리처럼 보이는 금환 일식이 관측될 수 있다.

이러한 원일점, 근일점, 원지점, 근지점의 위치는 태양, 행

성 등 다른 천체들의 인력에 의해 영향을 받아 미세하게 변한다. 현재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은 약 0.017인데, 일정한 주기로 이심률이 변한다. 천체의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더 작아지면 근일점은 현재보다 더 멀어지며 원일점은 현재보다 더 가까워지게 된다. 이는 달의 공전 궤도 상에 있는 근지점과 원지점도 마찬가지이다. 천체의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천체의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커지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4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태양의 인력으로 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이 약간씩 변화될 수 있다.
- ② 현재의 달 공전 궤도는 현재의 지구 공전 궤도보다 원 모양에 더 가깝다.
- ③ 금환 일식이 일어날 때 지구에서 관측되는 태양의 각지름은 달의 각 지름보다 크다.
- ④ 지구에서 보이는 보름달의 크기는 달 공전 궤도 상의 근지점일 때보다 원지점일 때 더 작게 보인다.
- ⑤ 지구 공전 궤도 상의 근일점에서 관측한 태양의 각지름은 원일점에서 관측한 태양의 각지름보다 더 크다.

46.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북반구의 A 지점에서는 약 12시간 25분 주기로 해수면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현상이 관측된다. 이 현상에서 해수면이 가장 높은 때와 가장 낮은 때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한다. 이 조차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이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인데, 그 거리가 가까울수록 조차가 커진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조차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면, 조차는 북반구의 겨울인 1월에 가장 크고 7월에 가장 작다.

천체의 다른 모든 조건들은 고정되어 있고, 다만 지구 공전궤도의 이심률과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만이 조차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 (㉠)

- ①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에 변화가 없다면, 1월에 슈퍼문이 관측되었을 때보다 7월에 슈퍼문이 관측되었을 때, A 지점에서의 조차가 더 크다.
- ②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에 변화가 없다면, 보름달이 관측된 1월에 달이 근지점에 있을 때보다 원지점에 있을 때, A 지점에서의 조차가 더 크다.
- ③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에 변화가 없다면, 7월에 슈퍼문이 관측될 때보다 7월에 원지점에 위치한 보름달이 관측될 때, A 지점에서의 조차가 더 크다.
- ④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더 커지면, 달이 근지점에 있을 때 A 지점에서 1월에 나타나는 조차가 이심률 변화 전의 1월의 조차보다 더 커진다.
- ⑤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더 커지면, 달이 원지점에 있을 때 A 지점에서 7월에 나타나는 조차가 이심률 변화 전의 7월의 조차보다 더 커진다.

[170~17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문 미리보기]

2017학년도 9월에 출제된 법인격 부인론 지문입니다. 이때까지 배운 것을 적용해서 읽어주면 됩니다. 시간은 9분 드리겠습니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사단은 법인(法人)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부른다.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한다. 사람과 법인만 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그리하여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사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며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일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한 것이다.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인 주식 회사'에서는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는 것이다.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일어난다.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으로 둔다. 또한 대표 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 뿐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 총회의 기

능은 퇴색하기 쉽다.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 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 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권리 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이어 이를 받아들인다. 회사가 일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 총회나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다.

170.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단성을 갖춘 단체는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기구를 둔다.
- ② 주주가 여러 명인 주식회사의 주주는 사단의 사원에 해당한다.
- ③ 법인격을 얻은 사단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④ 사단 법인의 법인격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
- ⑤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에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가 사단이다.

171. 윗글에서 설명한 주식회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표 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 ② 일인 주식회사는 대표 이사가 법인격을 갖는다.
- ③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결정한다.
- ④ 주식회사에서는 주주 총회가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이다.
- ⑤ 여러 주주들이 모여 설립된 주식회사가 일인 주식회사로 바뀔 수 없다.

172. (a)~(e)의 문맥상 의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법인에 속해 있지만 법인격과는 구별되는 존재
- ② ㉡ : 사단이 진 빚을 갚아야 할 의무
- ③ ㉢ : 여러 사람이 결합한 조직체로서의 성격
- ④ ㉤ : 회사라는 법인격을 가진 독자적인 실체로서 운영되지 않는 경영
- ⑤ ㉥ :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여 권리 능력을 누릴 수 없게 된 상태

173.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회사의 경영이 이사회에 장악되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법인격 부인론은 주식회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 ③ 회사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확정되면 법원은 법인격 부인론을 받아들여 그 회사의 법인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 ④ 법원이 대표 이사 개인의 권리 능력을 부인함으로써 대표 이사가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인격 부인론의 의의이다.
- ⑤ 특정한 거래 관계에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려는 목적은 그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가 진 책임을 주주에게 부담시키기 위함이다.

174.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겸비(兼備)하면 ② 구비(具備)하면
③ 대비(對備)하면 ④ 예비(豫備)하면
⑤ 정비(整備)하면



본 교재의 저작권은 도란도란 출판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려면 도란도란 출판사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동글 수능국어

독서 해설지

지문을 관통하는 일관된 흐름과 원칙

단순 연도별 기출 문제 배열이 아닌 동일한 구조와 행동을 보이는 기출 문제들을 패턴화
그리고 단순 문제 해설이 아닌 지문에 대한 정보 처리 능력을 길러주는 수능 국어 기출 분석서
11개년 기출 문제를 일관된 틀로 주제에 입각하여 분석하자

도란도란

사전 정보

[학습 포인트]

	독특한 미감을 자아내는 승선교
2, 3문단	(홍예, 석축)
4문단	자연스러운 미의식
5문단	소박하고 조화로운 미감

사전 정보 구조는 핵심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정보를 깔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홍예와 석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독특한 미감을 자아내는 승선교가 중요한 것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었나요? 정말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태도를 확립하자.

[1문단]

선암사(仙巖寺) 가는 길에는 독특한 미감을 자아내는 돌다리인 승선교(昇仙橋)가 있다. 승선교는 번잡한 속세와 경건한 세계의 경계로서 옛사람들은 산사에 이르기 위해 이 다리를 건너야 했다.

[해설]

승선교는 독특한 미감을 자아내는 돌다리이고, 번잡한 속세와 경건한 세계의 경계라고 정의하네요. 개념 정의는 흡수해주세요.

승선교는 가운데에 무지개 모양의 홍예(虹霓)를 세우고 그 좌우에 석축을 쌓아 올린 홍예다리로서, 계곡을 가로질러 산길을 이어 준다.

[해설]

승선교는 홍예와 석축으로 이루어져 있군요. 그렇다면 가장 상위층의 정보인 독특한 미감을 자아내는 승선교에 대해 읽어보면 되겠다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겠죠. 같이 읽어볼게요.

[2문단]

홍예는 위로부터 받는 하중을 좌우의 아래쪽으로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구조적 안정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동서양에서 널리 활용되었다.

[해설]

홍예는 구조적 안정성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승선교의 구성 중 하나인 홍예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홍예를 세우는 과정은 홍예 모양의 목조로 된 가설들을 세우고, 그 위로 홍예석을 쌓아 올려 홍예가 완전히 세워지면, 가설들을 해체하는 순으로 이루어진다.

[해설]

홍예를 세우는 과정은 가설들 세우고 홍예석 쌓고 가설들을 해체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간단히 읽어두면 되겠죠.

홍예는 장대석(長臺石)의 단면을 사다리꼴로 잘 다듬어, 바닥에서부터 상부 가운데를 향해 차곡차곡 반원형으로 쌓아 올린다. 모나고 단단한 돌들이 모여 반원형의 구조물로 탈바꿈함으로써 부드러운 곡선미를 형성한다. 또한 홍예석들은 서로를 단단하게 지지해 주기 때문에 특별한 접착 물질로 돌과 돌을 이어 붙이지 않았음에도 견고하게 서 있다.

[해설]

홍예는 부드러운 곡선미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접착 물질 없이도 견고함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어? 그런데 승선교의 독특한 미감이 아닌 홍예의 미감에 대해 설명하고 있네요? 승선교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까지 계속 정보를 정리해가며 읽어주세요.

[생각의 질서 확립]

‘홍예의 구조와 미감에 대해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항상 내가 뭘 읽고 있는지 알아야 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읽을 수 있다.

[3문단]

승선교는 이러한 홍예와 더불어, 홍예 좌우와 위쪽 일부에 주위의 막돌을 쌓아 올려 석축을 세웠는데 이로써 승선교는 온전한 다리의 형상을 갖게 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의 일부가 된다.

[해설]

2문단은 홍예에 대해 설명했는데 3문단은 석축에 대해 설명하네요. 이렇게 문단 들어오자마자 뭘 설명할지 알려주는 정보를 던져줄 때 이를 덩석 받아먹고 활용해줘야 해요. 석축에 대해 읽어볼게요.

층의 구분이 없이 무질서하게 쌓인 듯 보이는 석축은 잘 다듬어진 홍예석과 대비가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변화감 있는 조

화미를 이룬다.

[해설]

잘 다듬어진 홍예와 무질서하게 쌓인 듯 보이는 석축은 대비가 되면서 조화미를 이룬다고 합니다. 홍예와 석축의 특징을 대비하면서 읽으면 되겠죠.

한편 승선교의 홍예 천장에는 용머리 모양의 장식 돌이 물길을 향해 돌출되어 있다. 이런 장식은 용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물로부터 화를 입는 것을 방지한다고 여겨 만든 것이다.

[해설]

어? 갑자기 석축이 아니라 홍예 천장이라고요? 석축이 아닌 홍예 천장에 화를 입는 것을 방지해주는 용머리 장식 돌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글을 읽으면서 문단 내에 이질적으로 보이는 정보가 있다면 덧붙여진 정보로 생각해두고 따로 표시해두도록 할게요.

고득점 특강

덧붙이는 정보

수능 기출을 뜯어보면 문단 말미에 이질적인 정보들을 덧붙이는 경우가 있다. 글을 읽는 학생도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치부하고 넘어가기 마련이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따로 표시를 해두도록 하자. 중요해서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출제되니 하는 것이다.

[4문단]

계곡 아래쪽에서 멀찌감치 승선교를 바라보자.

[해설]

승선교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읽자마자 바로 반응해줘야 합니다. 홍예와 석축을 바탕으로 승선교에 대해 설명을 하겠죠.

계곡 위쪽에 있는 강선루(降仙樓)와 산자락이 승선교 홍예의 반원을 통해 초점화되어 보인다. 또한 녹음이 우거지고 물이 많은 계절에는 다리의 홍예가 잔잔하게 흐르는 물 위에 비친 홍예 그림자와 이어져 원 모양을 이루고 주변의 수목들의 그림자도 수면에 비친다. 이렇게 승선교와 주변 경관은 서로 어우러지며 극적인 합일을 이룬다. 승선교와 주변 경관이 만들어 내는 아름다움은 계절마다 그 모습을 바꿔 가며 다채롭게 드러난다.

[해설]

승선교는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며 합일을 이룬답니다. 1문단에서 말한 승선교의 미감에 대한 정보네요.

[5문단]

승선교는 못사람들이 산사로 가기 위해 계곡을 건너가는 길목에 세운 다리다.

[해설]

1문단의 '승선교는 번잡한 속세와 경건한 세계의 경계로서 옛사람들은 산사에 이르기 위해 이 다리를 건너야 했다.'는 설명과 연관 지어 읽어볼 수 있죠. 단락 간 짝짝 연결해서 읽을 수 있었나요? 쉬운 지문에서부터 연습을 해둬야 합니다.

그러기에 호사스러운 치장이나 장식을 할 까닭은 없었을 것이다.

[해설]

호사스러운 치장이나 장식을 할 까닭이 없었다고 하니 X 표시를 해두면 되겠죠. 이렇게 X 표시를 해두면 시각적으로 눈에 띄기도 하고 정보들 간의 우열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다리가 아름다운 것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옛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미의식이 반영된 덕택이다. 승선교가 오늘날 세사의 번잡함에 지친 우리에게 자연의 소박하고 조화로운 미감을 선사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해설]

4문단의 '승선교와 주변 경관은 서로 어우러지며 극적인 합일을 이룬다.'는 설명과 연관 지을 수 있겠죠. 쉬운 지문인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생각하지 말고 읽는 방식을 잘 봐주세요. 나중에 어려운 지문에서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글이 유기적으로 짝짝 달라붙어요. 승선교는 소박하고 조화로운 미감을 이루고 있다는 설명은 1문단의 승선교의 미감에 대한 정보이니 핵심이죠.

고득점 특강

사전 정보

사전 정보라는 것은 사전에 배치된 정보라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굴러가는 원리에 대해 글을 쓰려고 한다. 그러나 바로 설명을 시작하면 독자가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부품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자동차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 이때 각각의 부품에 대해 먼저 설명하는 것을 사전 정보라고 한다.

1. 정답 ②

선택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률	4%	76%	8%	8%	1%

승선교의 미감이라는 핵심 내용을 위주로 글을 읽었어야 한다. 4 문단을 보면 홍예와 물 위에 비친 홍예 그림자가 이어져 원 모양을 이루고 주변의 수목들의 그림자도 수면에 비친다. 이렇게 승선교와 주변 경관은 서로 어우러지며 극적인 합일을 이룬다고 한다.

- ① 2문단을 보면 홍예석들은 서로를 단단하게 지지해주기 때문에 특별한 접착 물질로 돌과 돌을 이어 붙이지 않았음에도 견고하게 서 있다고 한다.
- ③ 2문단을 보면 홍예는 예로부터 동서양에서 널리 활용되었다고 한다.
- ④ 2문단을 보면 홍예는 홍예 모양의 가설틀을 세우고 장대석의 단면을 사다리꼴로 잘 다듬어 반원형으로 쌓아 올린다고 한다.
- ⑤ 2문단을 보면 홍예는 위로부터 받는 하중을 좌우의 아래쪽으로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구조적 안정성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2. 정답 ⑤

선택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률	5%	5%	17%	21%	50%

<보기>를 보면 옥천교는 금천 바깥의 사악한 기운이 다리를 건너 안으로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깨비 형상을 조각했다. 3 문단을 보면 승선교는 용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물로부터 화를 입는 것을 방지한다고 여겨 용머리 모양의 장식 돌이 돌출되어 있다고 한다. 옥천교와 승선교 모두 세속을 구원하고자 하는 종교적 의식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 ① 승선교는 산사에 이르기 위한 다리이고 옥천교는 임금과 임금에게 허락받은 자들만이 건널 수 있었다.
- ② 승선교는 막돌을 쌓아 올려 석축을 세웠지만 옥천교는 미려하게 다듬은 돌만 사용하고 난간에 갖가지 조각을 장식하여 화려함을 드러내었다.
- ③ 옥천교는 인위적인 금천 위에 놓여 왕의 공간과 궁궐 내의 일상적 공간을 구획하는 경계로 만들어졌지만 승선교는 산사에 이르기 위해 계곡을 가로질러 다리를 만들었다.
- ④ 옥천교는 왕의 공간과 궁궐 내의 일상적 공간을 구획하였고 승선교는 번잡한 속세와 경건한 세계의 경계이다.

3. 정답 ④

선택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률	4%	1%	0%	91%	0%

‘방지’는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 것’을 의미하고, ‘그치다’는 ‘계속되던 일이나 움직임이 멈추거나 끝나다’는 의미이다.

[학습 포인트]

Q	슈퍼문이 발생하는 이유는? (달의 공전 궤도가 타원 궤도라는 점)
A	근지점에 위치하여 각지름 커짐
A	이심률이 커져 근지점이 가까워져 각지름 커짐

슈퍼문 지문은 다음의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합시다.

- ① 슈퍼문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답을 읽었는가
- ② 달의 공전 궤도가 타원 궤도라는 점이라는 부분을 읽고 사전 정보를 배치하겠다는 느낌이 왔는가

[1문단]

우리는 가끔 평소보다 큰 보름달인 ‘슈퍼문(supermoon)’을 보게 된다. 실제 달의 크기는 일정한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해설]

‘실제 달의 크기는 일정한데 달이 유독 크게 보이는 슈퍼문이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이 현상은 달의 공전 궤도가 타원 궤도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해설]

‘왜 달이 크게 보이는가’에 대한 답을 읽기 위해서는 우선 달의 공전 궤도가 타원 궤도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우선 달의 공전 궤도가 타원 궤도라는 점에 대해 읽고 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읽어볼게요.

[2문단]

타원은 두 개의 초점이 있고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를 합한 값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다.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 모양에 가까워진다.

[해설]

타원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 모양에 가까워진다는 관계식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관계식은 지문 위에 화살표로 표시하거나 여백에 메모합시다.

타원에서 두 초점을 지나는 긴지름을 가리켜 장축이라 하는데,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장축의 길이로 나눈 값을 이심률

이라 한다.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이심률은 작아진다.

[해설]

이번에는 장축의 개념과 이심률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이심률이 작아진다는 관계식입니다. 아까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 모양에 가까워진다고 했으니 관계식을 이어보면 이심률이 작아지면 원 모양에 가까워진다는 내용을 새롭게 도출할 수 있겠죠? 이처럼 관계식과 관계식을 이어볼 수 있기에 항상 표시해주세요.

고득점 특강

관계식 연결

관계식과 관계식을 연결하면서 읽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두 관계식을 연결하면서 도출한 식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이다. 관계식을 연결하여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자. 하나는 지문 위에 화살표로 표시하는 것이다. 표시를 남기면 기억에 오래 남고 시각적으로 쉽게 눈에 들어온다. 또 다른 하나는 지문 옆에 여백에 메모를 하는 것이다. 메모를 하면 한 눈에 관계식을 알아볼 수 있기에 관계식끼리 연결이 보다 쉬워진다. 두 가지 중 본인에게 편한 하나를 선택하여 연습하도록 하자.

[3문단]

달은 지구를 한 초점으로 하면서 이심률이 약 0.055인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 이 궤도의 장축 상에서 지구로부터 가장 먼 지점을 ‘원지점’,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지점’이라 한다.

[해설]

원지점 : 장축 상에서 지구로부터 가장 먼 지점

근지점 : 장축 상에서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

1문단에서 슈퍼문이 발생하는 까닭을 살펴보기 위해서 달의 공전 궤도가 타원 궤도라는 점을 살피자고 했죠? 그래서 3문단의 첫 문장을 달이 타원 궤도로 돌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보름달은 약 29.5일 주기로 세 천체가 ‘태양 - 지구 - 달’의 순서로 배열될 때 볼 수 있는데, 이때 보름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슈퍼문이 관측된다.

[해설]

보름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슈퍼문이 관측된다고 합니다. 1문단의 질문에 대한 답임을 파악해야죠. ‘왜 슈퍼문이 발생할까?’ ‘보름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해서!’

슈퍼문은 보름달 중 크기가 가장 작게 보이는 것보다 14 % 정도 크게 보인다. 이는 지구에서 본 달의 겉보기 지름이 달

라졌기 때문이다. 지구에서 본 천체의 겉보기 지름을 각도로 나타낸 것을 각지름이라 하는데, 관측되는 천체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각지름이 커진다. 예를 들어, 달과 태양의 경우 평균적인 각지름은 각각 0.5° 정도이다.

[해설]

답을 읽었으면 답에 대한 부연 설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슈퍼문이 발생하는 것은 지구에서 본 달의 겉보기 지름이 달라졌기 때문이고 각지름이 커져서라고 합니다.

[4문단]

지구의 공전 궤도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해설]

3문단은 달의 공전 궤도에 대해 설명했고 4문단은 지구의 공전 궤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같은 현상이라고 하니 크게 이질적인 정보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읽어봅시다.

지구 역시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로 공전하고 있으므로, 궤도 상의 지구의 위치에 따라 태양과의 거리가 다르다.

[해설]

달은 지구를 한 초점으로 해서 공전했고 지구는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해서 공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위치에 따라 거리가 다르고요. 비슷한 정보 흐름이니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달과 마찬가지로 지구도 공전 궤도의 장축 상에서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갖는데, 이를 각각 원일점과 근일점이라 한다.

[해설]

원일점 : 장축 상에서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

근일점 : 장축 상에서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

달과 마찬가지로 먼 지점과 가까운 지점을 갖는데 이는 원일점과 근일점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단어가 대응되고 있으니 구분해서 읽어주세요.

지구와 태양 사이의 이러한 거리 차이에 따라 일식 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해설]

거리 차이에 따라 일식 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니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읽어볼게요.

세 천체가 ‘태양 - 달 - 지구’의 순서로 늘어서고, 달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특정한 위치에 있을 때, 일식 현상이 일어난다. 이때 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대부분의 경우 태양 면의 전체 면적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 일식이 관측된다.

[해설]

일식 현상이 일어나는데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달이 위치하면 개기 일식이 관측된대요. 달의 공전 궤도와 마찬가지로 지구의 공전 궤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3문단에서는 보름달이 근지점에 위치하면 슈퍼문이 관측된다는 것을 중요 정보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개기 일식도 ‘유사하게’ 중요한 정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일식이 일어나는 같은 조건에서 달이 원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대부분의 경우 태양 면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지 않아 태양 면의 가장자리가 빛나는 고리처럼 보이는 금환 일식이 관측될 수 있다.

[해설]

원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금환 일식이 관측될 수 있대요. 금환 일식은 개기 일식보다 덜 중요한 정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개기 일식과 금환 일식을 구분하면서 읽어주세요.

[5문단]

이러한 원일점, 근일점, 원지점, 근지점의 위치는 태양, 행성 등 다른 천체들의 인력에 의해 영향을 받아 미세하게 변한다. 현재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은 약 0.017인데, 일정한 주기로 이심률이 변한다. 천체의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더 작아지면 근일점은 현재보다 더 멀어지며 원일점은 현재보다 더 가까워지게 된다.

[해설]

지구 공전 궤도에서 이심률이 작아지면 근일점은 더 멀어지고 원일점은 더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관계식은 지문 위에 화살표로 표시해주세요.

이는 달의 공전 궤도 상에 있는 근지점과 원지점도 마찬가지이다.

[해설]

이번에는 달의 공전 궤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니 이심률이 작아지면 근지점은 더 멀어지고 원지점은 더 가까워지겠죠.

천체의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천체의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커지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해설]

이번에는 이심률이 커질 때예요. 이심률이 커지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를 명시적으로 밝혀줘야 합니다. 이심률이 커지면 근지점은 더 가까워지고 원지점은 더 멀어지겠죠. 1문단에서 설정한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답이에요. 즉 이심률이 커지면 근지점이 더 가까워져서 보름달이 더 크죠.

고득점 특강

반대의 정보

기출을 의식적으로 풀다 보면 필자가 반대의 상황을 서술하지 않은 경우나 간단하게 서술한 경우는 문제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필자가 밝히지 않은 경우를 뭉개고 읽어 버리는데 그렇게 독해해서는 안 된다. 반대의 상황을 밝혀주거나 간단하게 서술한 경우를 구체화하면서 읽어주도록 하자.

45. 정답 ②

선택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률	3%	66%	17%	7%	4%

관계식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문제. 2문단을 보면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 모양에 가깝다는 관계와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이심률은 작아진다는 관계를 통해 생각해 보면 이심률이 작을수록 원 모양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달의 이심률은 0.055이고 지구의 이심률은 0.017이다. 따라서 지구의 이심률이 더 작아 원 모양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① 원지점, 근지점 등은 다른 천체들의 인력에 의해 영향을 받아 미세하게 변하고 달 공전 궤도 상의 이심률은 커지는 경우에 대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므로 이심률이 변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4문단을 보면 금환 일식이 일어날 때 달이 원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여 태양 면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다. 따라서 태양의 각지름이 달의 각지름보다 더 크다.
- ④ 글의 핵심을 묻고 있다. 3문단을 보면 보름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슈퍼문이 관측된다는 것으로 보아 원지점일 때 더 작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글의 핵심을 묻고 있다. 3문단을 보면 관측되는 천체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각지름이 커진다는 것으로 보아 근일점에서 관측한 태양의 각지름은 원일점에서 관측한 태양의 각지름보다 더 크다.

46. 정답 ④

선택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률	7%	10%	16%	51%	13%

<보기 분석>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분석해야 한다. <보기>의 조차가 커진다는 말은 천체가 커 보일 때를 의미한다. 왜 슈퍼문이 관측되는가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였다.

A : 보름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할 때 슈퍼문 관측

A : 이심률이 커지면 근지점이 가까워져서 슈퍼문 관측

이로부터 생각해 보면 근지점에 해당하는 1월의 조차가 가장 크다. 또한 이심률이 커지면 근지점에 해당하는 1월의 조차가 더욱 커질 것이므로 적절한 것은 ④번이다.

- ① 1월과 7월 모두 슈퍼문이 관측되었을 때라는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근지점에 위치해있다는 조건은 동일하다. 1월은 근일점이고 7월은 원일점이므로 1월의 조차가 7월의 조차보다 크다.
- ② 이심률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 1월에 달이 근지점에 있는 경우가 달이 원지점에 있는 경우보다 더 조차가 크다.
- ③ 이심률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 7월에 슈퍼문이 관측될 때라는 것은 근지점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조차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7월에 원지점에 위치한 보름달이 관측될 때의 조차가 더 커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이 더 커지면 원일점은 더 멀어지게 된다. 따라서 A 지점에서 나타나는 조차가 이심률 변화 전의 7월의 조차보다 더 작아짐을 알 수 있다.

[학습 포인트]

	사단성	법인 등기
사단 법인	O	O
법인이 아닌 사단	O	X
일인 주식회사	X	O

사단 법인 지문은 위의 표와 같이 비교 대조하면서 읽었어야 한다. 막연히 사단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일인 주식회사와 같이 단어들만 머릿속에 동등 떠다녀서는 안 된다.

P	일인 주식회사는 사람 인격과 법인격이 구분되지 않아 문제
P의 내용	이사회나 주주 총회 기능 퇴색, 회사 자체는 허울만 남음
S	법인격 부인론
S의 내용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 동일시

3문단부터는 문제점과 해결책의 흐름으로 글이 이어진다.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집중하면서 글을 읽어야 하는데 막연히 '법인격 부인론'과 같은 단어만 머릿속에 동등 떠다녀서는 안 된다.

[1문단]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

[해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권리 능력이라고 개념을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해설]

사람은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죠.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해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가진다고 했는데 단체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비해서 읽어주세요. 사람에 대해 설명이 끝났고 이제 단체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네요.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해설]

단체 중 사단을 설명하고 사단의 성질과 구성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해하면서 읽어주되 그러지 못한다면 '사단에 대해 설명하고 있구나'와 같이 인식해두세요.

사단은 법인(法人)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부른다.

[해설]

사단은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이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한다는 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과 연관 지을 수 있겠죠.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한다.

[해설]

사단 법인은 사단성을 갖추고 법인으로 등기되었는데 '법인이 아닌 사단'은 사단성을 갖췄는데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사단이라고 하네요. 사단 법인과 대비해서 읽어주세요.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그리하여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사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해설]

다시 사람과 단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고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구별된다고 합니다. 사람과 법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네요.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이 구별되기 때문에 사단 법인이 진 빚은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2문단]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며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해설]

회사도 사단성을 갖는 법인이라고 합니다. 회사 중 주식회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일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한 것이다.

[해설]

주식회사 중 일인 주식회사는 사단성을 갖지 못하는데 법인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1문단의 사단 법인과 법인이 아닌 사단을 설명했을 때 사단성과 법인 등기에 대해 설명했죠. 마찬가지로 일인 주식회사도 사단성과 법인 등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니 대비하면서 읽어주세요.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인 주식회사’에서는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해설]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의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경우가 있어 일인 주식회사에서는 일인 주주가 대표 이사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는 것이다.

[해설]

위와 같이 일인 주주가 대표 이사가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지니 법인이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모호해진다는 것을 보니 웬지 문제점을 설명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생각의 질서 확립]

사단 법인과 법인이 아닌 사단과 일인 주식회사를 대비하면서 읽어줘야 한다. 특히 일인 주식회사를 대비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쉬운 지문으로 충분히 연습해줘야 한다. 기출을 소홀히 하지 말자.

[3문단]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일어난다.

[해설]

2문단의 회사 운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는 설명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네요. 사람의 인격과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읽어볼게요.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으로 둔다. 또한 대표 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해설]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이고 대표 이사는 이사 중 한 명,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라네요. 네? 기관이요? 일단 개념을 정의하니 흡수해줍니다. 주주 총회는 이사의 선임과 보수 결정하네요. 음...문제점에 대해 설명은 안하고 사전 정보들을 배치하고 있네요.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 총회의 기능은 퇴색하기 쉽다.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 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해설]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이사회나 주주 총회의 기능이 퇴색하기 쉽다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해설]

이처럼 주주가 한 사람뿐이어서 회사의 이름과 형식이 장식에 지나지 않으면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네요.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

[해설]

이런 특정 거래 관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

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시한다는 것이죠.

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권리 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이어 이를 받아들인다. 회사가 일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 총회나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다.

[해설]

이런 예외를 법률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권리 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이어 이를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70. 정답 ⑤

선택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률	5%	15%	16%	11%	50%

1문단을 보면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를 사단이라고 한다. 따라서 사단은 제도가 아니라 단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① 1문단을 보면 운영 기구를 둔다는 사단성이 있다.
- ② 1문단을 보면 사단의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한다. 따라서 주식 회사의 주주는 사단의 사원에 해당한다.
- ③ 1문단을 보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법인격을 얻은 사단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④ 1문단을 보면 사단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사단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단성을 갖추면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고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고 한다.

171. 정답 ①

선택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률	35%	32%	11%	14%	5%

3문단을 보면 대표 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라고 한다. 따라서 대표 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 ② 1문단을 보면 사단은 법인으로登記되어야 법인격이 생긴다고 한다. 따라서 사단 법인이 법인격을 갖는 것이지 일인 주식회사는 사단 법인이 아니므로 대표 이사가 법인격을 갖지 못한다.
- ③ 3문단을 보면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 ④ 3문단을 보면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으로 둔다고 한다.
- ⑤ 2문단을 보면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株式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172. 정답 ⑤

선택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률	5%	4%	8%	18%	62%

㉔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 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다. 이는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분간되지 않는 듯 보이는 경우에 생기는 문제를 말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는 것과는 상관없다.

- ①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고 한다.
- ②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이 구별되기에 사원 개인에게까지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 ③ 1문단을 보면 사단성은 사단이 갖춘 성질이라고 한다.
- ④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인다고 한다.

173. 정답 ⑤

선택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률	8%	15%	7%	20%	48%

3문단을 보면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나 주주 총회의 기능이 퇴색되기 쉽거나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하는데 이는 일인 주주의 책임을 회사에 떠넘기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 ① 3문단을 보면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일 뿐이고 법인격 부인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 ② 3문단을 보면 법률은 법인격 부인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권리 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이어 이를 받아들인다고 한다.
- ③ 3문단을 보면 법인격 부인론은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고 한다.
- ④ 3문단을 보면 법인격 부인론은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한다고 한다. 법원이 대표 이사 개인의 권리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174. 정답 ②

선택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률	52%	39%	2%	2%	2%

㉠의 ‘갖추다’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있어야 할 것을 빠짐없이 다 갖추다’는 의미를 가진 ‘구비’이다.

- ① ‘검비하다’는 ‘두 가지 이상을 아울러 갖추다’는 의미이다.
- ③ ‘대비하다’는 ‘어떤 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다’는 의미이다.
- ④ ‘예비하다’는 ‘미리 마련하거나 갖추어 놓다’는 의미이다.
- ⑤ ‘정비하다’는 ‘흐트러진 체계를 정리하여 제대로 갖추다’는 의미이다.



본 교재의 저작권은 도란도란 출판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려면 도란도란 출판사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